

# 고교 부족 광산구 “도심학교 유치도 어렵네”

### 타 자치구 배정 3년간 3천명 원거리 통학 괴로운 학생들 이전 부지 매입 예산 없고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난색

광주시 광산구에 학생수 대비 고교가 부족하다보니 원거리 고교 배정, 과밀학급 등 부작용이 반복돼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높다.

학부모들은 “광산구에 고교를 신설하거나 타 자치구 소재 고교의 광산구 이설을 적극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신설 불가 방침에 따라 원도심에 있는 사립고교의 관내 이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13일 광산구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광산구에 있는 16개 고교 가운데 일반고는 10개교 뿐으로 광산구 지역 고교 신입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백여명에 달하는 광산구 소재 중학교 졸업생이 타 자치구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은 등·하교 시간만 한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최근 3년간 광산구에서 타 자치구 고교에 배정돼 불편을 겪고 있는 신입생 숫자만 지난 2016년 1382명, 2017년 939명, 2018년 798명 등 3119명에 이른다. 최근 광산구에서 중학교 졸업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타 자치구 배정이 다소 줄어든 것지만, 오는 2021년까지 광주시 전체 신입생 대비 광산구 신입생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매년 수백여명의 학생들이 관외 학교로 배치될 처지다.

광산구는 이 때문에 수완동에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이 향후 신입생이 감소할 것이라며 고교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 동구에 있는 살레시오여중·고를 관할하는 학교법인 살레시오수녀학원이 ‘학교를 광산구로 옮기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오자 이설을 본격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 부지 매입’이라는 벽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치솟는 광산구 땅값 때문에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 부지를 팔더라도 새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산구 교육지원과 김양숙 과장은 “신설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시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관외 학교의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구 살레시오여중·고와 이설을 협의하고 있으나 관련 부지매입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살레시오여중·고가 광산구로 이설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시교육청이 직접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교육부에도 원도심 학교가 신도심으로 이전

할 경우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광산구 학부모들은 “고교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이 수년간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며 “교육당국이 직접 나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광산구 하남지구에는 고교가 단 1곳도 없으며 수완지구는 4개 고교가 있으나 신입생 숫자를 수용하지 못해 25명인 학급당 인원수를 초과한 30여명 이상씩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복절에 태극기 달아요 제7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광주 북구 임동주민센터 직원들과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원,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임동 평화맨션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치매에 사라져가는 기억... 오늘도 애타는 고향 노래만

### 첫 ‘위안부 기림의 날’에 만난 광주·전남 유일 생존자 94세 광예남 할머니

“죽어도 집에서 죽고, 살아도 집에서 살고 싶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14일 첫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광예남(94) 할머니는 기쁨을 언어로 이루다 표현하지 못했다. 다만, 입버릇 처럼 고향을 그리워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광 할머니는 현재 고향 담양에 머물고 있으나, ‘부모님과 살던 고향’을 애타게 찾고 있다.

광 할머니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다.

광 할머니는 15살이 되던 지난 1940년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 고향 담양서 조카가 돌봐 광주시·남구 등 다양한 행사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해방 이후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안휘성 숙주에서 60여년간 머물다가 지난 2004년에야 고향인 담양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귀국 이후 세포암·폐암 4기 진단과 함께 치매가 찾아온 광 할머니의 기억은 78년 전에 머물고 있다. 하루 빨리 고향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어머니·오빠를 만나고 싶다는 이렇듯 수 없는 희망을 품고 있다.

광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조카 이관로



(62)씨는 “이모님이 최근에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았던 담양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며 “가족들과 살던 고향집은 허물어져 버렸고 부모님 묘소에도 다녀왔지만 이모님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광주시

는 14·15일 시청 1층 시민홀과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전시, 영화상영, 토크쇼 등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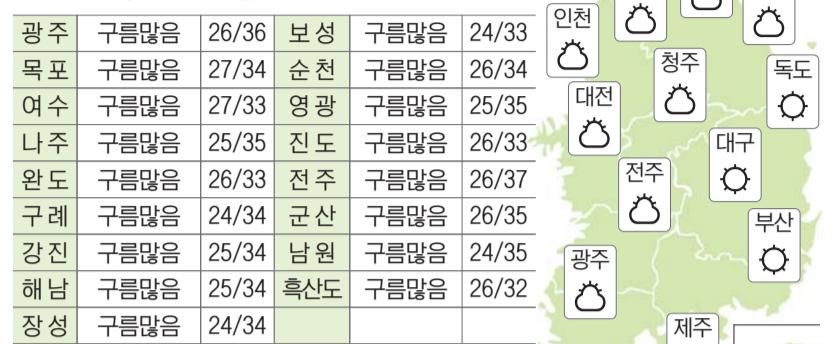
남구는 14일 오후 7시30분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음악공연·강연으로 구성된 평화문화제를 연다. 북구는 오전 11시 북구청 광장에서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기자회견, 소녀상 뒤편 퍼포먼스를 펼친다. 광산구는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영화, 영상상연, 성명서 낭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는 전국 6개지역 순회 전시로 오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전시, 강연을 마련한다.

한편,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으로 이중 28명이 생존해 있고 212명이 세상을 떠났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1 | 해질 19:23 | 달뜨기 08:45 | 달짐 12:30

무더위는 언제 끝나?  
남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다.



구분	구름	강수량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광주	구름많음	26/36	보성	구름많음	24/33	
목포	구름많음	27/34	순천	구름많음	26/34	
여수	구름많음	27/33	영광	구름많음	25/35	
나주	구름많음	25/35	진도	구름많음	26/33	
완도	구름많음	26/33	전주	구름많음	26/37	
구례	구름많음	24/34	군산	구름많음	26/35	
강진	구름많음	25/34	남원	구름많음	24/35	
해남	구름많음	25/34	혁신도	구름많음	26/32	
장성	구름많음	24/34				

구분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부	면바다	남동~남	2.0~3.0	남동~남	2.0~3.0
남해	앞바다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면바다(동)	동~남동	1.5~2.5	동~남동	1.5~2.5
서부	면바다(서)	동~남동	1.5~2.5	동~남동	1.5~2.5

구분	간조		만조	
	시각	수치	시각	수치
목포	09:25	04:21	21:36	16:30
	21:36	16:30	04:52	11:08
여수	04:52	11:08	17:05	23:32

구분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구름	☁	☀	☀	☀	☀	☀	☀
강수량	27/35	26/36	25/35	25/35	25/35	25/35	25/35

## 5·18부상자회 비대위 “현집행부 회원 60명 허위 입원”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구속부상자회 집행부가 부상자 등급 상향을 명목으로 회원 60여명을 2011년 11월부터 광주시 남구의 한 병원에 허위 입원하도록 했으며 업무처리 비용 등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집행부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회원 5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집행부는 병원측과 공모해 회원들을 45일 이상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며 실제 입원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며 “이 중 일부 회원에게는 법무사 비용·진행경비 등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집행부는 수천만원

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양모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 “해당 병원은 신경정신과적으로 잘 진료한다는 소문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다”며 “구속부상자회가 공법단체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5·18 유공자 등급 재분류 심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몸상태보다 등급이 낮은 회원들에게 재심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행부측에서 ‘부상자 등급을 상향시켜 주겠다’며 허위로 회원들을 입원시키고 돈을 받았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 전남도교육청 주요보직 정기인사... 교육장 9명 교체

전남도교육청은 분청 교육국장과 정책기획관에 각각 송용석 전남미용고교 교장과 김영중 순천향림초교 교장을 전보하는 등 9월 1일자 주요보직 정기인사를 13일 단행했다. <명단 22명>

교원인사과정에는 김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에는 교육진흥과 김성에 장학관이 임용됐다.

이번 인사에서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운데 9명이 바뀌었다. 장석웅 도교육감이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96명의 교육청 고위 간부(장학관·교육연구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직신청서 제출을 지시하며 인사태풍을 예고한 것을 고려하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현호 기자 khh@

www.namwon.go.kr

춘향남원  
사랑의 번지

# 시원 상쾌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들레길,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공연 삶의 여유와 힐링을 선물합니다.